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better

PEOPLE

10  
2003

better

WORLD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 3 머릿글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4 주간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10월 프로그램
- 6 화제의 강연  
박재희 철학박사(중국철학)
- 10 자랑스런 회원  
전순표 세스코 회장
- 14 화제의 지방자치단체  
강희복 아산시 시장
- 17 지자체 소식
- 18 나의 경영이야기  
이두호 한국자금융재(주) 사장
- 20 세상을 보는 눈  
문원택 서강대학교 초빙교수
- 22 회원 & 연구원소식
- 26 발행인편지
- 27 수필  
중국 연변 해외친목회 초청 행사
- 30 한권의 책  
진민자 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 31 이규태 칼럼

Better People, Better World 통권 제 32호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월간 비매물  
 발행일 : 2003년 10월 1일 발행인 : 장만기  
 Tel : 2203-3500(대) Fax : 2203-1974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8-8  
 편집디자인 : 디자인코드 www.cod2.com  
 인쇄 : (주)동명인쇄 462-6323

표지인물

**전순표** 회장

전순표 회장은 우리나라 '취박사 1호'로 평생을 해충방제연구에 몸담아오면서 개념조차 생소하던 방제산업을 첨단산업으로 탈바꿈시켜 아시아 최대의 방제회사로 자리매김시킨 경영인이다.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신념과 전 국민을 가족처럼 여기는 서비스경영으로 국민기업이라는 사랑을 받고 있는 전회장을 만나 방제산업의 현황과 해충 天敵 기업 세스코의 서비스경영에 대해 알아본다.

<관련기사 10~13면>



오늘 하루,  
건강하게 시작하세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무공해 건강미인이래요. 그 비결이요?  
먼저 신선한 과일주스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바깥 때도 틈틈이 채소와 과일로 몸에 생기를 불어넣죠.  
정말 중요한 건 꼭 우리 농산물이라는 거예요.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 몸이 먼저 알더라구요.

# 인력고급화가 시급하다

유 장 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최**근 「뉴스위크」지는 미국의 교육제도, 특히 대학교육이 왜 성공을 계속하고 있는가에 대해 특집을 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비되는 사례로 한국교육은 지금 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가도 박스기사로 다루고 있다.

미국 대학들이 세계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요즘 중남미나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대학사정이 어렵게되자 미국 대학으로 전학하려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대학들도 80년대 일시적으로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 당시 미국경제가 겪고있던 경제불황의 여파를 맞아 그랬을 뿐 인적자원개발의 봄을 타고 곧 정상화되었다.

미국대학의 성공요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중 특기할 요인은 네 가지다.

첫째, 대학교육의 첫 단추가 정부에 의해 잘 끼워졌다는 점이다. 즉 대학교육의 보편화 정책이다. 약 150년 전 미국정부는 대학교육을 일부 소수 인텔리층에 국한시키지 않고 되도록 많은 청년들에게 개방시키는 정책을 썼다. 국유지를 각 주 정부에게 떼어주면서 이것을 민간에 팔아 주립대를 창설할 것을 중용하였다. 그 기금으로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수들을 영입하였음은 물론이다. 또한 학비를 싸게 책정하여 많은 소수민족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초연구 프로젝트를 대학이 주도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가 큰 규모의 연구기금을 마련하고 전국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연구비를 따내는 제도를 쓴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과 교수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연구비 혜택을 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경쟁적으로 힘을 썼다. 물론 국립연구소도 몇 개 있기는 하나 이들은 오히려 대학의 연구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일종의 지원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 미국정부의 지속적인 인력개발정책이다. 강제성은 없되 유인책이 대단히 큰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안해낸 것이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직후 제대하게된 군인들에게 대학교육을 거의 무료로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한 일 등이다.

넷째, 민간의 적극적 협력이다. 미국사회에는 대학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기금 및 자선단체들이 많다. 개인차원의 후원자까지를 합하면 미국이야말로 대학발전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기금이 풍부하다. 이 배경에는 그 동안 미국의 국가발전 이면에 대학교육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인정과 신뢰가 깊게 깔려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대학들이 참고해야할 사항이 많다. 우선 대학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고등교육을 받고싶은 젊은이들이 다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입시제도를 바꿔야한다. 대학이 기초학문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정부가 기금지원을 해야하며 또 민간에서도 대학에 아낌없이 기여금을 내도록 제도를 개편할 일이다. 우리실정에 맞는 기여입학제도 고안해 내야한다. 고급인력양성이 곧 국력이다. 인력이 고급화되면 청년실업의 문제도 풀릴 것이다. **人間**





# 10 번째

매주 목요일 07:00~09:00

##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여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의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초찬 강연 회로서 과거에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가균형발전의 의의와 과제

1320회 10월 2일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뽀뿌룸  
성 경 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참여정부는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균형 없는 집권-집중 발전모델에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이다. 지난 시기 우리는 정부주도의 압축성장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추진된 집중형 발전모델은 수도권과 밀과 비수도권의 정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민분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초래하였다.

우리에게 부딪친 이러한 문제를 미처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는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조직이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집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사적 환경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때이다.

금번 연구회에서는 성경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초빙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의의와 과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국가비전 하에서 전국의 각 지역이 각각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 ▲ 日 외서대대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석사(1974)
-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1977)
-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1979)
- ▲ 美 스탠포드대 사회학 박사(1990)
- ▲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장(1992)
- ▲ 한림대 사회교육원장(1996)
- ▲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위원(1997)
-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1998-2003)
- ▲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2000-03)
- ▲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2001)
- ▲ 한림대 연구협력처장(2001-03)
- ▲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2002)
- ▲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2003-현)  
<저서> 체제변동의 정치사회학(1996) 국민국가 개혁론(1997) 복지국가론(공)(2000) 외



### 상상력과 창조경영

1321회 10월 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머랄드룸  
강 신 장 삼성경제연구소 지식경영실 상무

산타에게 빨간 옷을 입힌 것은 코카콜라였다. 1920년대 콜라 판매가 비수기에 접어드는 겨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고심하던 코카콜라는 겨울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산타를 광고 캠페인에 등장시켰다. 근엄한 표정의 산타는 코카콜라의 상상력이 힘입어 옷의 모습의 뚱뚱한 할아버지가 됐다. 산타가 코카콜라를 연상시키는 흰색 털이 달린 빨간색 외투를 입고 커다란 벨트를 차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산타, 산타=코카콜라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현재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600억 달러(약 85조원)로 세계 최고, 여기에는 무엇보다 코카콜라의 상상력과 함께 산타가 기여한 바도 클 것이다.

최근 공부모임에 참여하는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왜 공부부를 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각 분야에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답한다고 한다. 이처럼 특정 분야에 직접 연관된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주변 정보들에 대한 학습역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은 경영 혁신의 화두가 하이브리드(잡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경영지식만 파고들면 답이 나왔지만 지금은 아니다. 기업 내부 스태프에게만 의존해서도 혁신안이 나오기 힘들다. 중세사를 전공하고도 후렛팩커드의 회장이 된 칼리 피오리나처럼 이제는 역사나 철학 같은 데서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영지식이 나오는 창조경영의 시대이다.

금번 연구회에서는 최근 한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의 강신장 상무를 초빙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상상력을 통한 창조적 경영스길을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 ▲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1981)
- ▲ 연세대 경영대학원 마케팅 석사(1994)
- ▲ 美 카네기멜론대 E-BIZ과정 수료(2001)
- ▲ 삼성생명 입사(1983)
- ▲ 삼성인력개발원(1984-88)
- ▲ 삼성경제연구소 컨설팅실(1990-94)
- ▲ 삼성비서실 인사팀(1995-97)
- ▲ 삼성구조조정본부 인력팀(1998-2001)
- ▲ 삼성경제연구소 지식경영실 상무(2001-현)





## 고속철도시대를 맞으면서

1322회 10월 16일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뱌뷰룸  
정 중 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되는 경부고속철도가 2004년 4월이면 부산까지 임시개통을 하게 된다. 1992년 착공한 고속철도는 2010년까지 대구, 경주, 부산을 잇는 신선을 깔아 완전 개통되면 서울~부산 구간을 불과 1시간 56분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유럽은 현재 제제베(프랑스), 이체(독일), 아베(스페인)란 고속철이 있다. 일본도 신칸센운행으로 소위 메가폴리스란 하루생활권을 실현했다. 세계 다섯 번째로 실현되는 고속철도시대의 개막은 출퇴근과 통학, 주거,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전국의 산업지도와 지역발전, 관광·레저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출퇴근이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또 고급인력 확보와 관련 산업과의 연계문제 등으로 수도권에 몰려있던 첨단 산업분야의 공장과 사무실이 임대료와 땅값 등이 썩 지방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속철도시대 개막으로 동경-서울-북경을 잇는 동북아 고속철도망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열리게 되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양면성이 있어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 요소를 가지게 마련인만큼 사업의 완벽함 마무리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금번 연구회에서는 철도행정의 신뢰를 창출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정중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을 모시고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고속철도 시대의 비전에 대해 조명해보기로 한다.

-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1969)
- ▲ 美 워싱턴주립대 경제학 석사(1979)
- ▲ 순천향대 명예경영학 박사(2000)
- ▲ 농수산부 행정사무관(1972-74)
- ▲ 교통부 조정, 국제항공과장(1983-89)
- ▲ 교통부 항공국장(1992-93)
-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1995-96)
- ▲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1997-98)
- ▲ 제2대 철도청장(1998-2001)
- ▲ 충남발전연구원 원장(2001-02)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2002)
- 《저서》 개혁시대 뉴테크노엘리트 40인 연구(1993)
- 과학과 인터넷이야기(2001)
- 《상훈》 흥조근정훈장(1992) 행정서비스대상(2001) 외

## 더 건강하게 더 오래살기 - 노화방지 의학을 중심으로

1323회 10월2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머랄드룸  
클로드 쇼샤르 프랑스 라 클리닉 드 파리 원장

인간의 수명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은 인류가 변영해 오는 동안 꾸준한 화두로 이어져 왔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그들의 날은 1백20년이 되리라"라는 하느님이 인간의 수명을 1백20년으로 제한한 구절이 있다. 동의보감에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 수명이 본래 4만 3천 2백여일, 즉 1백 20세를 영생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간의 수명이 영원한 것이 못되기에 건강함을 바라는 꿈과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함께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질병에 시달리면서 흥미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천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살아온 햇수가 아니라 몸의 노화정도인 것이다. 그 동안 노화는 유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보다는 생활 속의 각종 선택이나 행동양식이 개개인의 수명과 건강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죽는 날까지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씩 발견해내고 있는 가운데 노화방지에 대해서는 생리적으로 신체의 모든 밸런스가 맞아야만 체내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결국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올바른 생활행동양식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곧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장수비결로 연결되는 것이다.

금번 연구회에서는 노화방지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프랑스 라 클리닉 드 파리의 클로드 쇼샤르 박사'를 초빙하여 일상생활에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과 모든 인간의 꿈인 장수비결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한다.

- ▲ Univ. of Montpellier 박사
-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reventive Anti-Ageing Medicine 설립자
- ▲ La Clinique de Paris International 설립
- ▲ 고려대 명예박사(2003)
- 《저서》 Live Longer, Live Better Looking Good Through Life 외

## CEO를 위한 휴테크 성공학

1324회 10월 3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머랄드룸  
김 정 운 명지대학교 여가정보학과 교수

'여가는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요즘 사회적으로 뜨거운 화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휴일이 일하는 날을 위해 피곤을 푸는 소극적 의미였다면 앞으로는 주중 근무가 휴일을 위해 존재하는 하위 개념이 될 것이다. '노동'을 위한 여가에서 '여가'를 위한 노동'으로의 인식 전환이 가능해진 것은 무엇보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덕분이다. 사회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산업사회에서 여가사회로 전환하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휴식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를 즐기는 당사자인 노동자보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의 여가활용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도 이제는 휴가를 시혜적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휴테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여가를 즐기는 것이 생산성을 저하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고정관념의 산물이며 오히려 휴식과 여가에서 재미와 자기반성이라는 본질적 의미를 발견해 개인과 조직에 필요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 조직의 리더라면 상황이 어려울수록 직원들의 여가를 배려함으로써 휴테크에 신경써야 하는 것이 21세기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위기를 헤쳐갈 비전이 휴테크를 통해 길러진 창의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금번 연구회에서는 국내 최초의 여가학 전문가로 휴테크를 경쟁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21세기형 자기경영 전략이라고 말하는 김정운 명지대 교수를 초빙하여 휴테크 운영을 통한 CEO의 성공법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한다.

- ▲ 고려대 심리학과 졸업(1987)
- ▲ 베를린 자유대학교 심리학 석사(1992)
- ▲ 베를린 자유대학교 문화심리학 박사(1998)
- ▲ 베를린 자유대학교 심리학과 전임강사 (1995-2000)
- ▲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여가정보학과 주임교수 (2002-현)
- ▲ 명지대학교 여가문화연구센터 소장(2002-현)
- ▲ 한국여가문화학회 총무이사(2002-현)
- 《저서》 문화의 심리학(2002, 독어판) 휴테크 성공학 (2003)

# 손자병법과 21세기의 기업경영

박재희 철학박사(중국철학)

2003년 9월 18일 (목)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손자병법은 손무(孫武, BC 6세기경)라는 29세의 젊은 청년장군이 쓴 책이다. 공자, 노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손자는 공자와 노자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생존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다. 손자병법은 실제로 청년장군 손자가 7년 동안 중국 양자강 유역에 있던 오(吳)나라의 군권을 맡으면서 야전에서 오(吳)나라를 키워나가는 현장보고서가 집적된 것이다. 조직의 리더는 어떻게 보면 손자가 꿈꾸는 아름다운 인간형인 야전 사령관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손자병법 중 가장 그릇된 구절중의 하나가 百戰百勝이라는 말이다. 손자병법에는 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없다. 백 번 싸워서 백 번 이기는 야전사령관이라면 병력들을 어마어마한 위험으로 몰 수 있다고 손자는 경고한다. 그래서 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을 한다.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은 최선 중의 최선이 아니다(是故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그래서 百戰不殆, 백 번 싸워서 우리 조직을 위태롭지 않고 생존시키는 것이 장군의 임무이자 장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손자는 곳곳에서 강조한다.

## 위대한 장군의 다섯 가지 덕목

손자는 위대한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다섯 가지의 덕목을 갖춰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實力이다. 철저히 실력있는 장군만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판단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위기 속에서 돌팔구를 찾아내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말한다. 둘째, 所信이다. 자기를 임명한 군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소신이다. 셋째, 仁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대한 장군론〉을 보면 히딩크가 생각한다. 비록 23명의 병력을 이끌던 장군이었지만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히딩크 장군에게 달려가는 그 장면은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다. 뛰어가는 박지성이라는 병사의 모습에서 시험에서 백점을 맞았다고 시험지를 들고 엄마에게 달려가는 아이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딩크가 없었다면 박지성이라는 병사가 그런 공을 세울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히딩크는 그의 능력을 믿었고,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히딩크라는 장군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축구에 대한 전문적인 실력이 있었고, 1년 9개월 동안 소신을 갖고 조직을 끌고 나간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소신도 있었다. 그리고 평소에 선수들과 따뜻한 교감이 없었다면 그렇게 가서 꺼안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뜻함이 없는 히딩크였다면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가서 보고하는 수준으로 끝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전 사령관들은 실력도 있고, 소신도 있어야 하지만 따뜻해야 한다. 따뜻함이 없는 실력과 소신이라면 아름다운 장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용기다. 어려운 곳을 병사들보다 제일먼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 뒤로 빠지고 병사를 앞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엄격함이다. 엄격함이야말로 손자방법에서 꿈꾸는 위대한 장군의 중요한 항목이다. 손자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제갈공명이 울면서 자기의 오른팔 마속을 베는 고사는 유명하다. 자신의 오른팔이고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지만 시스템을 어긴 그 장군을 용서한다면 적어도 또 다시 수백 명의 병력을 잃는 또 다른 폐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장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일급참모 마속의 목을 베다. 그 엄격함이다. 대부분 조직원들이 나와 고생을 같이 했으니, 나의 은인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어긴 사람들을 놔두어서 조직이 망가지는데 손자는 철저히 그런 면에서 장군의 엄격함을 강조한다. 손자는 知(仁)勇(武), 실력과 소신, 따뜻한 인간애와 용기, 시스템주의를 숭상하는 엄격함이 위대한 장군이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한다.

### 조직을 이끄는 책임자는 공통적으로 능력, 사랑, 소신, 의리,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장자〉라는 책에는 〈도척의 우화〉가 나온다. 춘추말기에 수백 명의 졸개들을 끌고 다니던 도척이라는 유능한 도둑이 있었다. 도척의 부하인 졸개는 그에게 "두목님, 당신처럼 저도 위대한 도둑이 되고 싶은데 위대한 도둑이 되기 위해서 도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도척은 "내가 아무리 도둑이지만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최고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적어도 나처럼 위대한 대도가 되려면 다섯 가지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위대한 도둑이 되기 위한 다섯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대한 도둑은 어느 집에 훔칠 것이 많는지 그것을 짚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투자 감각이다. 기획은 머리가 좋은 아래 사람이 할 일이다. 방향을 설정하는 것, 즉 돈 냄새를 맡는 것이 위대한 도둑이 할 일이다. 둘째, 목표가 설정되면 담을 넘어 들어가야 하는 데 그 담을 제일 먼저 들어갈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맹자가 말한 匹夫之勇이 아니다. 한 사람만 상대할 수 있는 감정과 분노를 터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천만 명이라도 다 덤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스스로 반성해서 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비록 저자거리에 있는 거지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다. 대장부의 용기를 가지라고 도척은 이야기한다. 셋째, 물건을 훔치고 나올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넷째, 도둑질을 하기 전에 이번 도둑질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도둑에게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다. 도둑질 성공여부에 대한 판단력이라고 한다. 다섯째, 훔친 것을 부하들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능력이다. 도둑의 휴머니즘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잘 나누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직이 망가지고 꿈이 깨어지는 것은 나눔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도둑이 될 자격이 있다. 나눔은 돈뿐만 아니라 인사시스템도 포함이 된다.

손자방법에서 이야기하는 위대한 장군이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나 장자의 우화 속에 나오는 도척이 이야기하는 대도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의 조건이나 조직을 이끄는 책임자는 공통적으로 능력, 사랑, 소신, 의리,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 외에 강태공이 쓴 육도(六韜)라고 하는 병법서에 보면 위대한 장군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 8가지가 나온다. 첫째, 일에 대해 질문하여 그 사람이 얼마나 상세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지 검증해봐라. 둘째, 궁지에 몰릴 때 어떠한 위기 대처능력을 갖고 있는지 위기관리능력을 살펴봐라. 셋째, 주변사람들에게 탐문하여 평소에 주변사람들로부터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는지 살펴봐라. 넷째, 명백하고 확실한 질문을 통해 인격이 어떤지 살펴봐라. 다섯째, 재무관리를 맡겨보아서 그 사람이 돈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검증해라. 여섯째, 술을 먹여 취하게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술의 태도가 반듯한지 살펴봐라. 일곱째, 어려운 상황을 줌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용기를 내는지 살펴봐라. 여덟째, 색을 통해 그 사람이 얼마나 여자에 강하고 정조에 강한지 살펴봐라. 이상의 여덟 가지를 강태공은 위대한 장군으로 검증되고 뽑아야 할 자격조건으로 보고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수없이 많은 고전들은 위대한 장군이 나 어느 조직의 생존을 책임진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조직은 다음의 다섯 가지 특징을 보인다.

## 승리하는 조직은 같은 꿈을 꾀다

첫째, 같은 꿈을 꾀다. 위대한 장군이 이끄는 조직은 위아래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손자병법에서는 그것을 "그 조직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리더의 고민은 직원의 마음과 내 목표를 어떻게 하나로 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손자병법에서는 그것을 충성심이나 애사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손자는 병사들에게 철저하게 보상하라고 말한다. 병사들에게 죽음을 불사르고 돌진할 수 있는 힘은 빼앗은 전리품을 철저하게 공동으로 분배해주고 빼앗은 땅은 철저하게 장군들에게 분배해주면 그들의 꿈은 항상 같이 유지된다고 강조한다.

둘째, 승리하는 조직은 정확한 판단을 할 줄 안다. 손자병법에는 "돌아가리"는 구절이 많이 나온다. 싸우기 전에 상대방과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조직은 이긴다는 것이다. 장군은 절대로 감정과 분노에 얽매어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식힐 줄 알아야 되고 곧장 가는 길을 택하기보다 우회해서 가는 길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전술을 제안한다(迂直之計).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안영은 중국 역사상 드물게 보는 명 재상이다. 세 명의 왕(靈公·莊公·景公) 밑에서 재상을 지냈지만 절검(節儉)과 역행(力行)으로 일관하였다. 《안자춘추(晏子春秋)》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해, 초(楚)나라의 영왕(靈王)이 그를 초청하였다. 초(楚)나라 영왕은 인사말을 끝내기가 바쁘게 이렇게 입을 열었다. "제나라에는 사람이 없소? 하필 경(卿)과 같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낸 이유가 뭐요?" 안영의 키가 작은 것을 비웃는 말이었다. 초나라 왕은 당시 제나라를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심한 농담을 함부로 해댔다. 안영은 서슴지 않고 태연히 대답하였다. "그 까닭은 이려하옵니다. 저의 나라에선 사신을 보낼 때 상대방 나라에 맞게 사람을 골라서 보내는 관례가 있습니다. 즉,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내고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는데, 신(臣)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초나라로 오게 된 것이옵니다."

안영의 능수능란(能手能嫻)한 말솜씨에 기세가 꺾인 영왕은 은근히 부화가 끓어올랐는데, 마침 그 앞으로 포리(捕史)가 제나라 사람인 죄인을 끌고 가자 영왕은 안영에게 들으라고 큰소리로 죄인의 죄명을 밝힌 다음, "제나라 사람은 도둑질을 잘하는군."라고 말했다. 안영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듣기로는 굴이 회남(淮南)에서 나면 굴이 되지만, 회북(淮北)에서 나면 탕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聞之 橘生淮南則爲橘 生于淮北爲枳).

셋째, 시스템이다. 어떤 임무에 얼마정도의 인원을 투입하고 어떤 공격에 어떤 무기의 체계를 쓸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조직은 이긴다고 이야기한다. 한나라 때 왕 소우는 저녁에 술을 먹고 연회장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날씨는 쌀쌀해지는데 웃도 안 입고 자고 있었다. 그 옆에는 전의는 없고 전관만 있었다. 전관은 자기의 담당은 아니지만 옷을 가져다 덮어줘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왕이 감기에 걸릴까봐 가서 옷을 덮어주었다. 다음날 왕이 일어나서 "누가 옷을 덮었냐?"고 물었다. 전관이 덮었다고 하니 왕은 전의와 전관을 불러오도록 했다. 왕은 전의에게 "너는 왜 네 담당할 책임을 못하고 그 자리에 없었느냐. 당장 하옥시켜라!"고 명령하고 전관한테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 "너 또한 모자담당 관리가 남이 하는 일을 기웃거리느냐. 너는 네 담당을 어겼기 때문에 하옥을 시킨다. 내가 감기 걸리는 것도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내가 만약에 너에게 상을 준다면 모든 신하들이 각자 나한테 공을 세우려고 자기 일은 팽개치고 서로 월권을 할 것이 아니냐. 감기에 걸려 추워서 고생하는 것 보다 자기의 임무를 넘어서 그러한 재앙을 더욱 더 나는 참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넷째, 정확한 분석이다. 이것이 바로 지피지기(知彼知己)다. 정확히 준비하고 분석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맞아 싸우면 이길 것이다. 손자는 분석의 항목을 여러 가지로 정한다. 특히 기상조건과 지형조건에 대한 분석을 강조한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기상조건은 조직이 처해 있는 외부적인 환경을, 지형조건은 조직이 처해있는 내부적인 상황을 말한다. 우리 조직이 처해있는 외부환경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리고 우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등 이러한 분석의 틀이 뜻과 때라는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섯째, 후방에 있는 군주는 전방에 있는 장군에게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지 않는 조직은 승리한다. 손자는 현장의 책임자에게 무조건 맡기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한다. 손자는 전방에 보낸 장군에게 제일 악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하는데 첫째, 후방에서 전방 상황을 제대로 모르면서 전방에 있는 부대에게 공격하라 후퇴하라 명령하는 군주 둘째, 전방상황도 모르면서 후방에서 행정에 간섭하는 군주 셋째, 현장상황을 모르면서 후방에서 인사에 간섭하려는 군주다. 전방에는 유능한 장군을 선발해서 보내고 후방에서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맡기고 인정할 수 있는 조직은 승리한다는 것이 손자의 기본 생각이다.



##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조직이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전승불복(戰勝不服)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절대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승리는 잠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승리가 영원히 반복되리라고 믿지 말라. 손자는 "이 세상에 과연 진정한 승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쇠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고 승리를 자축할 때 불이 몰려오면 쇠는 녹아 버린다. 불 또한 물에 의해 무릎을 꿇고 말고, 물은 땅에 빨려 들어가고, 땅은 다시 나무에서 끌려 나 오고, 나무 뒤에는 쇠가 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승리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손자는 물을 닮은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유연하다.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다. 틈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메울 수 있다. 물은 자기의 고정된 모습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어떤 모습이 되든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조직이 유연한 조직이고 생존하는 조직이다.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조직은 물과 같다. 둘째, 물은 겸손하다. 물은 온 세상 만물을 자라게 하지만 절대로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을 닮아서 승리를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승리에 자만했다가 망한 조직들은 많다. 셋째, 물은 진퇴를 안다. 물은 흐르다가 웅덩이에 들어가면 잠시 쉴 줄 안다. 내 힘도 안되면서 억지로 웅덩이를 벗어나려고 용솨음 치지 않는다. 그 웅덩이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을 때 자절로 자연스럽게 웅덩이를 넘어서 또다시 갈 길을 재촉한다. 물은 내가 나아가야 할 때인지 잠시 멈춰야 할 때인지 진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다. 넷째, 물은 돌아갈 줄 안다. 온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물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돌도 뚫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강함에도 불구하고 흐르다 바위가 나타나면 슬쩍 돌아가는 강자의 여유가 있다.

손자는 물을 닮아서 이토록 유연하고 겸손하고 진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물처럼 강자로서 돌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조직이 승리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다.



# 고객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서비스경영'

전순표 세스코 회장

21세기 기업경영에서 고객감동은 타사보다 우월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절실해지면서 제조업,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전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다. 식품업체나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해충방제가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될 정도로 고객감동 노력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히 경제 개방으로 인한 방제산업분야의 외국기업 국내진출이 예상되면서 고객만족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단순한 고객개념이 아니라 '전국민이 고객이며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경영에 임해, 3D업종으로 인식되던 해충방제산을 첨단산업으로 탈바꿈시키며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대의 방제회사로 자리잡은 세스코는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다.

오늘의 세스코를 만들어낸 전순표 회장은 우연히 쥐와 인연을 맺게되어 쥐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평생을 해충방제연구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영인이다. 특히 전화장은 한번 서비스로 해충이 박멸된 지역에 '세스코 존' 마크를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세스코의 독특한 인터넷마케팅은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쥐박사 1호'로 개념조차 생소하던 방제산업을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이어오며, 최초로 '쥐잡는 날'을 제안하기도 했던 전화장을 만나 방제산업의 현황과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국민기업으로 사랑 받고 있는 세스코의 서비스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세스코는 지난 28년간 해충방제에 나서 '해충 天敵 기업'이란 평을 듣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진 것은 몇 년 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부터 해주시죠.

세스코는 방제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1976년, 민간인이 설립한 최초의 해충방제회사로 '전우방제(全宇防除)'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전우방제라는 이름에는 '전 우주를 방제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현재의 사명인 CESCO도 Chunwoo Environment Service Co., Ltd.의 약자로 전우방제라는 이름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죠.

민간기업 최초로 과학적인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쥐와 각종 해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충방제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왔어요. 또한 꾸준한 노력과 고객 서비스로 지금은 그 규모 면에서도 전국 36개 지사에서 1천여 명의 세스코맨이 10만여 고객에게 해충방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공히 아시아 최대의 방제회사로 성장하여 산업체 시장의 약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소규모업소와 일반 가정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 후 산업체 시장을 중심으로 입지를 다져오다 1997년 경영혁신을 통하여 해충방제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사명도 세스코로 변경하고 2000년부터는 해충방제업체로는 국내최초로 대중매체광고를 실시하면서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며 가정집을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회장님께서서는 쥐, 바퀴, 해충이 없는 푸른 환경의 보존을 모토로, 전 국민이 고객이라는 관점으로 경영에 임하고 계신데요. 세스코의 미래를 향한 경영방침은 어떤 것인지요.**

현대 경영의 화두는 고객이며, 모든 기업이 고객중심의 경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스코에게 고객은 그야말로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해충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서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해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내 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유로 국민이 고객이며 가족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해충방제라는 것이 해충으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건강과 환경을 지켜 드리는 것이므로 마치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나 문명이 발전할수록 해충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해충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발전에 따른 반대급부로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 심해져 해충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해충의 내성 때문에 점점 더 독성이 강한 약제를 사용하다보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웬만한 약제에는 박멸되지 않는 슈퍼해충까지 양산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세스코는 해충의 습성과 생태적 특성을 이용한 방제방법의 연구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에 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방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우리나라 '쥐박사 1호'로 '쥐잡는 날'을 최초로 제안하신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생소한 방제산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전후 우리나라는 심각한 식량난과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 저는 농대를 졸업한 뒤 농림부의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창고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보관 중인 양곡이 쥐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릴 적부터 선친께 근검절약과 식량의 소중함에 대해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저에게 쥐는 그야말로 숙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해서든 쥐를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쥐 연구를 위해 영국유학을 하였고 귀국 후 '쥐잡는 날'을 제안하여 쥐잡기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驅鼠運動을 이끌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쥐방제 예산의 제한과 공무원 신분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심 끝에 우리나라 최초로 방제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해충방제 사업 특성상 회사 설립초기 고객들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죠.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에는 해충방제라는 개념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돈 100원이면 사는 쥐약 대신 전문가에게 쥐잡는 일을 맡기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생각했었어요. 때문에 쥐와 해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죠.

영업을 위해서 직접 업체를 찾아다니는 와중에 잡상인 취급을 받거나 냉소를 받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업체의 불신과 무지를 해소시키기 위해 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설득을 했죠. 그러한 노력으로 여의도에 있는 모 쇼핑몰이 첫 고객이 되었으나 그나마도 3개월 안에 쥐를 한 마리도 없이 잡아주지 않으면 돈을 한푼도 지불할 수 없다는 불평등한 계약조건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기존에 무분별한 쥐약의 사용으로 쥐들이 이미 쥐약에 기피증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어요. 업주는 당장 계약파기를 요구했으나 거기서 그만 둘 수는 없었기에 끈질긴 설득으로 1개월의 유예기간을 얻어낸 저는 밤을 새운 연구와 공리 끝에 알고 있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투약을 실시하였고 드디어 2개월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냉대하던 업주도 3개월 후 쥐가 완전히 없어질 때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그 이후 그 쇼핑몰은 주변에 입소문을 내며 홍보역할을 자처하였고 지금까지도 세스코의 변함없는 고객입니다.

**세스코가 3개월 이상 서비스한 고객업체에는 '세스코 존' 마크를 부착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의 내용인지요.**

세스코의 해충방제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고 해충이 완전히 박멸된 고객업체에는 '해충없는 청정지대'라는 뜻으로 세스코 존 마크를 부착해드리고 정기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충이 없도록 관리하여 드립니다. 말하자면 세스코 존 마크는 일종의 해충이 없다는 보증표시와도 같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에 단골인 사람이 어느 날 음식에 바퀴벌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위생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그 동안 믿고 이용했던 것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해충은 그 끈질긴 생명력과 번식력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친구, 동료 그 누구도 그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때문에 세스코 서비스에 대한 보증의 의미와 함께 그 고객업소를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세스코 존 마크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세스코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세스코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는데는 대중매체와 더불어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스코는 웬만한 기업들은 이미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던 2000년 7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했어요. 사실 홈페이지의 Q&A는 해충 전문 질문답변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차원의 마케팅 혹은 전략적인 운영 방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저 모든 고객들의 질문에 해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답변한다는 일종의 원칙정도가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홈페이지를 개설한지 1년 뒤인 2001년 여름, 세스코 홈페이지의 접속자수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니 급기야 하루 방문자수 10만 명을 돌파하는 진기록을 수립하게 되었고 웹서버가 다운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본 결과, 게시판의 답변에 감동한 한 네티즌이 '이렇게 친절한 기업도 있다'는 제목으로 다른 게시판에 세스코의 답변내용을 소개하면서 입소문을 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충방제회사의 홈페이지라는 이유로 호기심과 장난기가 발동한 네티즌들이 장난 섞인 글들을 Q&A에 올렸는데, 그런 질문도 고객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한 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일일이 친절하고 재미있게 답변하고 대응한 것이 네티즌을 감동시킨 이유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홈페이지 Q&A의 인기는 인터넷 유머포털 사이트들을 석권하고 스포츠지의 유머란을 장식할 정도로 뜨거웠으며 이러한 유명세는 각종 언론들의 관심과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세스코는 일약 최고의 서비스 기업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거의 모든 대중매체와 언론에서 세스코를 보도했고, 유수의 대기업에서 강의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또한 무엇이든 물어봐도 모두 답변해주는 친절하고 똑똑한 회사로 젊은층의 관심과 지지를 얻게 되었으며 급기야 기업으로는 전세계 최초로 인터넷에 순수 팬클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홍보효과는 수십 억 원의 가치를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진' 일들을 겪고 나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진심의 힘이었으며, 노력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모 한국영화의 대사 중에 "좋은 인연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명이 놓아주는 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간혹 강연을 할 기회가 생기면 인용하기도 하는 이 말이 세스코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나 합니다.



**세스코는 현재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중국시장 성공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중국이 개방을 시작하고 자유경제체제를 표방하면서 한국기업에서는 중국을 다 차려진 밥상으로 생각하고 선불리 진출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충방제의 경우도 낙후된 환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기회가 충분해 보이지만 그와 함께 해충방제나 환경 자체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거나 성숙치 못하기 때문에 난관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스코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일반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국내에서도 세스코의 고객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중국현지법인이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해나갈 계획입니다. 중국과 같은 미지의 시장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가장 큰 관건이므로 조심스럽고도 서둘러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죠. 일단 중국시장에 진입하고 나면 세스코의 기술력과 서비스가 중국시장에서도 큰 효과를 일으키리라 자신합니다.

**회장님께서서는 평생을 방제산업에만 몸담고 계신데, 연세에 비해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나 취미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렇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없지만 20년간 꾸준히 해오는 것이 한가지 있어요. 1984년부터 집 근처에 있는 도장에서 하루 한시간씩 단전호흡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중 도장이 없어져 집 2층을 개조해 도장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해오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단전호흡은 꾸준히 조금씩만 해도 건강한 기를 몸에 담는데는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좋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사람 몇 명이 함께 하는 운동이기에 여러모로 좋은 운동이죠. 매일 거르지 않고 하는 운동이다 보니 출장을 가셔도 잊지 않고 하게 돼요.

호적상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이를 떠나 얼마나 몸이 건강한지를 따지는 생태학적 나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 나이에 비하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는 유연성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서는 1973년 '한국산 집쥐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요. 학위를 취득하게된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제가 농림부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우연히 쥐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농민이 피땀 흘려 수확한 양곡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쥐들이 먹어치운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의 가치관이었던 근검절

약을 실천하는 동시에 나라의 살림을 쥐들로부터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쥐를 잡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쥐를 퇴치하려면 먼저 쥐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당시 국내에는 쥐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거의 없었



으며 쥐를 연구하는 학자는 더욱이 없는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방제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었던 영국 정부에서 양곡저장 피해방지에 대한 연구를 할 국비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쥐에 대한 공부와 쥐 잡는 법을 배우기 위해 유학길에 오르게 된 것이죠.

2년 동안 영국에서 쥐를 연구하고 다시 귀국한 저는 모교인 동국대학교에서 논문을 발표하여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으로도 아실 수 있겠지만, 한국산 쥐의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쥐들을 수집하였고, 각종 실험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어요.

제가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쥐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쥐와 해충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저서를 발표한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쥐나 해충도 살아있는 생물이므로 그 자체에 대한 연구 없이는 근본적인 퇴치가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저희 연구원의 임원으로서 연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신 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간개발연구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8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항상 연구원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 매주 한번도 거르지 않고 29년 동안 경영자 연구회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원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업과 관련된 분들이기에 연구원이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더불어 당시로서는 생소하던 조찬 문화를 우리 경제계에 깊이 뿌리내리는데 선구자 역할을 한 연구원의 일원으로서 보람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연구원을 변함없이 지켜오고 계신 장만기 회장님의 열정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열매를 얻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에 장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간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훌륭한 인재양성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 개척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충남 아산시 강희복 시장

아산은 1995년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되면서 탄생한 도·농 복합형 도시로 경기도와 수도권을 연결해 충남의 관문역할을 하는 지리상 매우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경부고속철도 건설, 아산신도시 개발 등과 맞물려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지역개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아산은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이기도하다.

아산을 서해권 최대중심도시, 중부권 중추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민선3기 시정을 이끌고 있는 강희복 시장은 도시공학박사 출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마련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도시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남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정직, 창의, 책임을 모토로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앞세우는 현장중심의 행정운영으로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아산건설의 비전을 가시화시키고 있는 강시장을 만나 아산시의 발전계획과 향후 과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장〉

시장님께서 그 동안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민선3기 시장에 취임하셨는데요. 민선3기 1년이 지난 소감과 시정을 이끄시는 각오부터 말씀해주시죠.

시민의 입장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아산의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바쁘게 보낸 1년이었습니다. 민선3기 출범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하나 아직도 종래의 행태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 변화하려는 의지가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아산신도시 개발, 온천 관광지 활성화 추진, 도·농 복합도시로 첨단도시 조성 및 고부가가치 농업육성 등 많은 현안과제 해결과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해 20만 시민과 함께 결속된 의지로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민선3기 1년이 지나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셨던 아산시의 발전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업적과 함께 현안사업과 향후 예정중인 사업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죠.**

우리 아산시는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아산신도시 개발이 가시화되는 등 다른 지자체 보다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특히 아산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의 위성도시가 아닌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IT 중심의 최첨단 산업단지 유치로 지역기반을 튼튼히 하고 우리지역의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일대에 61만평 규모의 아산테크노 콤플렉스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2005년 완공을 목표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최대의 LCD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총 사업비 2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완공 후 연매출 10조원과 함께 1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되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경찰종합교육타운이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약 48만5천평 규모로 조성되어 1차로 교육생 훈련이 시작되는 2007년에는 연인원 13만 명의 현직 경찰 및 전·의경과 방문객 등 유동인구로 인해 연2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아산시 발전의 장애요인과 숙원사업이었던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시청과 민속박물관 사이에 청소년 문화종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2만평의 부지 매입과 사업을 위한 국비도 이미 확보하였으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공설운동장도 아산시 풍기동 주변 8만평에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5~6년 후에는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장님은 도시계획 공학박사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신데요.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아산시는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된 도·농 복합도시로서 21세기 중부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며 서해안시대를 선도해야할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아산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관광발전계획 등의 큰 틀을 마련하여 그 기본개념에 맞춰 도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5천만 전 국민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초일류 도시건설을 목표로 향후 개통 예정인 경부 고속철도와 수도권 전철, 장항선 복선화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기능 분담의 중부권 중추도시, 아산만권 지원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아산시 중장기 발전전략」을 비롯해

「도시기본계획」과 「관광발전 중장기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곡교천 종합정비계획」등을 세워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산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의 위성도시가 아닌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고 주거, 위락, 교육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107만평에 대하여는 고속철도 역사주변을 우선 개발해 수도권 주거, 업무기능분산 및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2단계로 330만평은 수도권 소재 대학 및 연구소를 유치할 예정이며 3단계로 439만평은 첨단산업 디즈니랜드형 대규모 위락단지로 조성해 자립형 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국도21호선 아산~천안 구간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포장하는 한편,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서수원~평택~아산신도시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요구하는 등 SOC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산은 온양온천 등의 관광자원이 풍부해 관광산업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관광산업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아산은 경기도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충남의 관문역할을 하는 지리상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및 경부고속철도, 아산신도시 개발 등으로 황해권 중핵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등 3개 온천을 휴식, 볼거리, 먹거리 조성과 함께 참여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테마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한 산업관광과 역사, 문화 유적지를 연계한 그린투어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현충사와 민속박물관, 외암민속마을 등을 가장 매력적인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광덕산에 삼림욕장을 만들고, 영인산에는 자연을 활용한 조각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신정호 주변의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시민과 아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또한 온천과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체류형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변모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아산은 도·농 복합형 도시로 아산에서 생산되는 쌀은 「으뜸쌀 전국 선발대회」 금상을 수상할 만큼 인정받고 있는데요. 소개와 함께 지역특산물 자랑 좀 해주시죠.**

우리 아산시는 열악한 농촌의 환경 속에서도 쌀을 비롯한 지역 특산품의 품질유지와 가격경쟁을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에는 쌀이 전국 최고의 “으뜸쌀”로 선정되는 등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개척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산쌀은 쌀 맛을 결정짓는 적당한 기후대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옥한 토질, 깨끗한 물과 신선한 해풍, 풍부한 일조량이 빚어내는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재배되는 “아산 갯벌쌀”은 맛과 영양이 살아 있는 전국 제일의 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산쌀의 우수성은 이미 지난해 농림부가 주관한 「전국 으뜸쌀 품평회」에서 영예의 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한국일보가 주관한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농림부가 「리브미쌀」 지정을 위한 전국 12개 대표 브랜드로 아산 갯벌쌀이 선정되어 예비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밖에 우리시의 지역특산품으로는 “아산배”와 “탕정포도”가 있습니다. 배 재배면적은 934ha에 연간 2만 3천 톤을 생산하고, 탕정포도는 450ha에 연간 6천 톤을 생산하여 250여 억 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영지버섯, 도고쪽파, 아산사과 등이 최고의 맛과 품질을 겹고 특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인 온양문화제가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축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42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온양문화제가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국가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600여 개 문화제 행사 중 올해 23개 문화제가 국가지정 문화제로 지정된 것으로 20만 아산시민의 숙원이 이루어져 큰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온양문화제는 매년 이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일을 전후하여 열립니다. 과거에는 지역적인 행사로 치러졌지만 지난 40, 41회를 문화관광예비축제로 개최하였으며, 올해도 지난 1월부터 행사를 계획하고 수정을 반복하여 신정호국민관광단지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소년 이순신, 청년 이순신, 명장 이순신, 성웅 이순신으로 스토리화하여 진행하였으며 거북선관, 전통거리, 거북선 체험시설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예전과는 다른 행사 진행과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양문화제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외에 아산시를 홍보하게 되며, 행사기간에는 국내외 약 13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30억 원의

소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향후 온양문화제 행사를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축제로서 관광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문화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은 공무원과 시민들의 평생교육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연구원과 공동으로 21세기 비전을 위한 아산시민대학을 개최하고 계신데요. 시민들의 반응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학술적으로 권위있는 강사 분들을 초청하여 매월 실시하고 있는 시민대학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 및 직장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위해 지명도가 높은 유명인사를 많이 초청했지만 앞으로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지역의 실정을 잘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 및 행정분야 전문가를 많이 초청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인간개발연구원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간개발 지방자치 아카데미 소식

## 제1회 영천한약축제

고목에 핀 꽃이 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땅속 깊은 곳까지의 지양분으로 세월의 향기를 꽃피우기 때문입니다. 5천년의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을 자랑스럽게 계승하고 있는 영천에서 전통의 향기와 현대적 의미를 담아 제1회 영천한약축제를 개최합니다. 수준 높은 한의약의 체험과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초대하오니 왕림하여 알찬 휴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사기간 : 2003. 10. 2(목)~10. 4(토), 3일간  
 개막식 : 2003. 10. 2(목) 11:00 공병대  
 장소 : (구)공병대, 도동생약유통단지  
 주최 : 영천시, 경 상북도  
 주관 : 농협중앙회영천시지부  
 후원 : 영천시약초연합회, 도동생약유통단지, 영천시한의사회, 영천한약협회, 한국한약도매업경북지회, 대구한의대, 동국대, 성덕대, 경운대, 아시아대

## 창의108주년 제천의병제

구한말 일제의 침략으로 조국이 위태로울 때 구국의 일념으로 분연히 일어서 을미의 병창의 불을 지켰던 제천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개최 뿐 아니라 국내 외에서의 독립운동의 모태가 되었던 충절의 고장으로써 제천의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국난을 극복한 불굴의 의병정신을 계승시키고자 '95년 '팔도에 고하노라'라는 기본주제로 제1회를 시작한 이래 금년도 9회를 맞이하게 되는 새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문화예술제입니다.

행사기간 : 2003. 10. 6 - 10. 12(7일간)  
 장소 : 지양영당, 시민광장, 차없는거리, 시민회관 등 제천시일원  
 주최 : 제천시(제천의병제추진위원회)  
 문의처 : 043-640-5701, 640-5706  
 행사내용



- 주요행사 : 지양영당, 고유제, 의병햇불봉송, 의병제전, 박달가요제, 의병유적지 순례, 공연행사, 전시행사, 읍면동 가장행렬, 의병대상선발대회 등
- 전시행사 : 거리축전, 시화전, 시낭송회, 문화강연회, 제천의병 사진시예전시, 유포전시회, 조종과 작품전시, 수석전시회, 한중교류사진·미술전 등
- 부대행사 : 의병지원군, 한방요리축제, 한방무료진료, 향토음식경연대회, 농특산물 직거래 등

##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

문화의 세기를 맞아 중원문화의 발상지이며, 한반도의 중심도시인 충주가 이제 세계 무술의 메카로 융통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통하여 국내외에 무술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충주시에서는 2003. 9. 30 ~ 10. 6(7일간)까지 충주체육관 일원에서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합니다.

"오천년 민족혼과 세계무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무술축제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 76호인 택견을 기반으로 충주를 세계적인 무술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세계적인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국내정통 무술은 물론, 세계 각국의 수준 높은 무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술 이벤트를 준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랍니다.



행사기간 : 2003. 9. 30 ~ 10. 6(7일간)  
 장소 : 충주체육관, 수안보, 양성온천, 시내일원  
 규모 : 35여개국 55여개단체(외국35, 국내20) => 800명정도  
 주최 : 충 주 시  
 주관 : 충주세계무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유네스코, 한국관광공사, KOTRA, 충청북도, 아리랑TV  
 주제 : 오천년 민족혼과 세계무술과의 만남

## 제8회 장성 백양단풍축제

"산과 물 인간의 역사가 조화를 이룬 곳 장성"에서는 노령의 정기를 담은백암산의 기암괴석과 천연기념물인 비자나무 숲속의 천년고찰 백양사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오색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하순경에 백양단풍축제를 개최합니다. 애기단풍의 아름다움과 관광장성의 좋은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전국단위의 단풍 등산대회와 특색있는 테마로 장성백양단풍축제가 개최되오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사기간 : 2003. 10. 24(금) ~ 10. 26(일), 3일간  
 장소 : 백암사광장, 장성읍내  
 주최 : 장성백양단풍축제추진위원회  
 개최목적 : 천년고찰 백양사와 천혜의 관광자원인 백암산의 오색 애기단풍을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  
 주요행사 : 백암산구기제, 단풍테마퍼레이드, 전국단풍 등산대회, 전국단풍 사생대회, 단풍나무 분재전 등  
 문의 : 문화관광과 관광체육담당 (Tel:061-390-7224)



## [인간개발 - 지방자치 아카데미] 개최현황

'95년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래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인간개발-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직자, 지역 단체 지도자 및 지역 주민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익혀, 자기 계발과 지방자치의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번	관련 단체	행 사 명	연번	관련 단체	행 사 명	연번	관련 단체	행 사 명
1	전남 장성군청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15	서울 중구청	중구 뉴밀레니엄 교실	29	전남 화순군청	화순군민 교양강좌
2	경남 거창군청	21세기 거창 아카데미	16	충북 충주시청	21세기 충주 아카데미	30	경북 영천시청	영천시민강좌
3	전남 강진군청	강진군민 자치강좌	17	경기 김포시청	김포시민자치대학	31	충남 부여군청	소부리 아카데미
4	경기도청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18	대구 달성군청	달성교양강좌	32	경북 고령군청	고령 아카데미
5	전남도청	거제시민대학	19	경북 영양군청	21세기 영양 해·달 Academy	33	전남 보성군청	보성자치포럼
6	경남 거제시청	거제시민대학	20	충남 서산시청	서산시 공무원 직장교육	34	충남 당진군청	당진군민 교양강좌
7	전남 나주시청	목사고를 시민대학	21	전북 부안군청	비전21 부안군민대학	35	전남 순천시청	순천시민 교양강좌
8	전북 정읍시청	21세기 새정읍 시민자치대학	22	경북 영덕군청	21C 영덕자치대학	36	경남 밀양시청	21C 밀양시민대학
9	충북도청	21세기 청풍아카데미	23	광주 동구청	21세기 동구아카데미	37	충북 제천시청	푸른 제천 아카데미
10	부천시청	이천 아카데미	24	인천 강화군청	강화군 아카데미			
11	이천시청	이천 아카데미	25	충남 아산시청	아산시민자치대학	38	전북 고창군청	고창 미래 포럼
12	광주 광산구청	어동자치포럼21	26	전남 곡성군청	21세기 심정골 자치강좌	39	대전 서구청	서랍이 자치대학
13	전남 무안군청	CHANGE21 무안포럼	27	강원 횡성군청	횡성 아카데미	40	경북 상주시청	21세기 상주아카데미
14	경남 함안군청	함안군민대학	28	전남 완도군청	21C 군민강좌			

# 금융 중개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중심으로

이 두 호 한국자금중개(주) 사장

저는 지난해 3월말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자금중개(주) 사장으로 재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직생활을 통해 습득한 실무와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와 금융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금융 중개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취임한 지 2년이 다가 오는 이즈음, 지난날을 회고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금융의 인프라이며 도매시장으로서의 중개시장

금융시장의 발전은 효율적인 금융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금융인프라의 한 축은 결제시스템(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등)이고, 다른 한 축은 중개시스템(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자금중개회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은 실물유통시장과 유사하게 도매금융과 소매금융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은행의 창구에서 고객을 상대로 한 시장이 소매 시장이라면, 금융기관간 자금의 과·부족을 중개하는 시장이 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장은 금융기관 창구가 아닌 금융중개회사

시스템에 의해 조성된다.

한국자금중개(주)는 금융인프라의 한 축을 이루는 중개회사이면서 금융기관을 고객으로 하는 도매금융시장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 회사 설립 및 현황

종래 콜중개는 8개 단자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은행권의 참여부진, 장단기 금리수준의 역전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996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20여 개 금융기관의 출자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는 금융기관간 외환·파생상품 중개업무, 2001년 채권중개 업무를 비롯하여 2003년 하반기 금, 현물 중개를 취급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금융중개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과 직원 수는 당초 1개 영업부서 27명에서 3개 영업부서 65여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본규모도 당초 납입자본금 100억 원에서 유보금을 포함하여 4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한국자금중개의 금융기관간 시장(Inter-Bank Market)에서의 역할

금융기관간 시장을 원화자금시장(콜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으로 나누어서, 한국자금중개가 그간 각 시장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자금중개의 출범으로 콜시장은 종래 1, 2금융권간 분리되었던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콜금리가 단기 지표금리로서 정착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월 자금시장동향을 분석하여 경기변동에 따라 콜시장을 금리정책을 전개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확산되어 콜시장 참여기관이 800여 개, 일일거래규모가 종래 10조원 수준에서 23조원 수준으로(한국자금중개 중개량 : 15조원) 확대됨으로써 콜시장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외환시장 및 장외 파생상품 시장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자금중개는 1999년 외환 중개업무를 개시하면서 현물외환 뿐만 아니라, 선진금융시장에 비해 뒤떨어진 파생상품(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금리조건의 교환 - 이자율 스왑, 현물외환과 선물외환간의 스왑, 외환옵션 등) 중개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현물환 시장에 전자자동중개시스템을 개발도입하여 금융의 IT화를 통해 인력과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한편 일일 외환 거래규모가 16억불(전체40억불의 40%수준), 파생상품 거래가 12억불(전체 60억불의 약20%수준)에 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 유통시장 발전 및 중개상품의 다양화에 기여한 것이다. 2001년 7월부터 금융기관간 채권의 유통중개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증권회사의 발행시장 채권 인수기능에 보완하여 채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외환중개, 콜중개 업무와의 시너지효과를 거양하여 R.P, CP, 이자율 스왑 등 다양한 파생상품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개회사가 소수·대형화되는 등 국내외 중개시장 동향을 볼 때 중개회사의 길이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다. 주요 해외 중개회사는 90년대 후반부터 은행간 합병 및 금융의 IT화 추세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중개회사의 수는 감소하고 규모는 대형화·국제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골지의 중개회사가 20여 개에 달했으나 2002년 말 현재 10여 개로 축소되고, 향후 3~4년 내에 4~5개로 통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CEO 중점 경영 방침

금융 중개회사는 금융기관 딜러를 고객으로 하는 회사로서 브로커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며, 경쟁상대는 국내보다도 해외브로커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첫째, 고객인 금융기관 딜러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다. 브로커는 금융기관 딜러가 이용해 줄 때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국제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딜러가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발전시키고 개개인 브로커는 딜러와의 지적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된다.

둘째, 브로커 개개인의 대외 경쟁력 향상으로 금융 중개시장은 브로커의 자질과 능력이 좌우하는 시장이라고 생각됨으로 외국의 우수 브로커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적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전문교육기관 파견과 아울러 OJT 훈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사장 자신부터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 수익다변화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중개 업무에서 개개인 브로커가 상품중개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것이 CEO의 1차적인 임무이라면,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는 것은 2차 임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중개 업무를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넷째, 경영의 투명성을 통해 노·사 간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투명한 경영의 일환으로 노조대표로 하여금 필요시 언제나 이사회나, 주요회의에 참관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임·단합 사안이 아니더라도 노조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파트너관계로서의 신뢰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人間**

# 고전적 손자병법 리더십과 현대적 번즈의 교감적 개혁리더십



문 원 택 서강대 초빙교수

고국에 돌아오면 늘 기쁜 일이 기다려준다고 생각하고 잠 설치며 여행의 발길을 재촉한다. 이번에도 나옹선사의 시를 고회를 넘긴 벼들에게 읊겠다고 외우면서 돌아왔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 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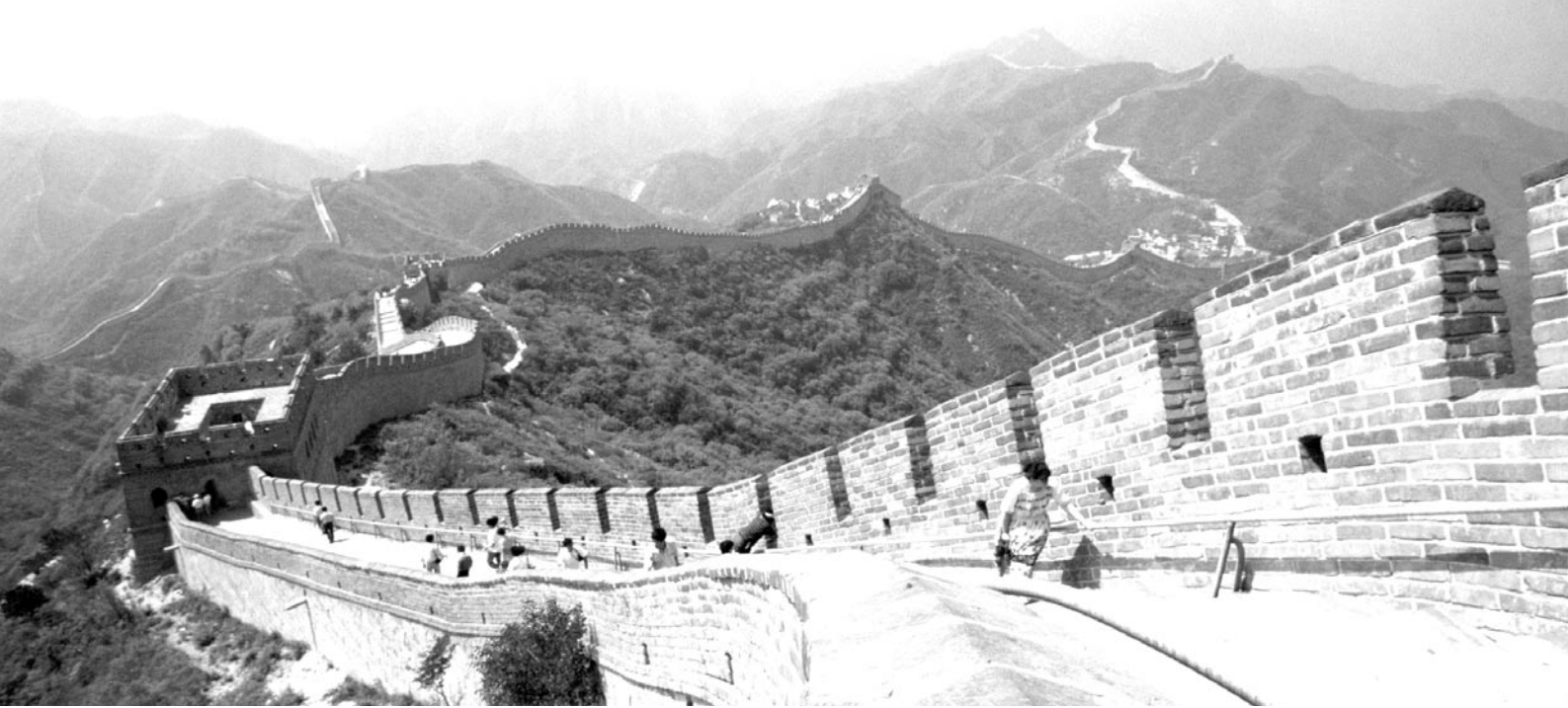
이 시는 금년도 "한국이민 100주년 기념 한미학술학회"에서 발표자 한 분이 한국과학자 100년사를 발표 후 끝맺음으로 낭독한 것이다. '어쩌면 이런 선물까지 가져다주었는지'하고 이러한 모임을 고마워했다.

인간개발연구원 경영자연구회에서 박재희 교수의 손자병법 강의의 또한 내가 전문으로 하는 리더십연구에 크게 도움이 된 고전적 장군론이라 기쁘게 경청했다.

리더 만들기 이론 서적은 미국의 경영학자 코비(Covey)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읽은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사상에서 벗어나 남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원만히 해야 가정과 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자기개발 3가지 습관, 그리고 남과 더불어 사는 3가지 습관, 마지막으로 조화 있는 총체적 평생개발습관을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한 책이다. 아마도 미국사람들 모두가 이러한 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리더십연구란 미국 경영학에서 주로 다루고, 특히 O·B(조직행동)학의 몫이 되어 왔다. 미국의 경영학은 합리적, 과학적 경영이 주류를 이루면서 생산성 향상은 과학적 기법을 통하여 획기적 발전을 가져와 경제대국 만들기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을 배우라고 했다. 현대에 와서 이것이 인본주의 경영(인본주의 사상이 생산성을 올린다)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경쟁력이 큰 도전을 받게 되는 전환기의 주산물인 '일본을 배우라는' 각성이 고조되면서 과학성, 합리성의 한계를 깨닫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민주적 리더십 이론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경영이론을 찾아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새 우수기업론(In Search of Excellence)'이라든가 'Z이론(Theory Z)', 그리고 '일본식 경영의 예술성(The Art of Japanese management)' 등의 좋은 서적이 새경영 탄생시대 즉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시대를 주도하게 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 그 열기가 최고 수준에 올라서 심지어는 해방경영(Liberation management)론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운동이 경영학에서 열기를 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이 가지고 온 것이 인본주의 경영이고 이것이 바로 매니저로서는 부족하고 기업에서도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었다.

손자병법 즉 고전적 리더십 연구는 대표적 사례연구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의 '장군론'은 더욱 그렇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역시 이 시대의 산물이고, 말하자면 '존경받는 리더가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시대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손자병법의 「知彼知己는 百戰百勝」이 아니고 병사들을 아끼고 이기는 길이란 「白戰不殆」의 개념이 오히려 옳은 리더십의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박재희 교수의 말이다. 병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장군의 리더십은 전쟁을 이겨야 하는 목적만을 고집하는 독재형 맹장보다는 병사의 희생을 극소화하면서 이길 수 있는 묘책을 선택하는 덕장(仁을 위해서 제2의 최선책을 강구하는)이어야 한다는 白戰不殆의 리더

십을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새 리더십모델과 대조해 비유하는 것이다.

이겨야 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기보다는 이겨야 하지만 부하 병사의 희생을 극소화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자세가 참다운 장군의 리더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는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하지만 병사의 희생을 극소화하는 것도 이겨야 하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명장의 기본 리더십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현대 리더십은 장군에게 智仁이 핵심요소가 되어야 하고 부하들의 자발적 협동을 이끌어내는 上下同欲의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리더십 연구가 제임스 번즈(Jamea M.Barns)의 유명한 리더십론에서 말하는 변혁적(Transforming)리더십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장차 리더로 키우는 일도 리더의 몫이라는 현대적 리더십 이론인 것이다.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뜻은 인간체일주의 사상이 으뜸이라는 말이고,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접하면 기업도 더 잘 되고 따라서 세상이 풍요해지고 평화도 이룬다는 것은 일본의 경영의 신 '가미사마'라고 불리우는 山下幸之助(마쓰시다전기) 회장의 말이다.

**끝으로 사람을 머슴 부리듯이 하지 말고 소모품이 아닌 인간임을 소중히 여기며 장차 리더가 되도록 키워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현대에서 존경받는 리더임을 기억해주시 바란다.** 人間

# 회원소식



헤리에타 보습인텐스 스킨케어  
HERIETTA MOISTURE INTENSIVE  
SKIN CARE

**웰코스 (회장 김상희)**는 최근 다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환경오염 및 스트레스 등으로 불균형진 피부밸런스를 복원시키고 깨끗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신개념의 여성 기초화장품 헤리에타(HERIETTA)**를 발매하고 가을 성수기 매출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금번에 출시된 헤리에타는 과일나라의 차기 주력브랜드로 육성될 웰코스의 기대작으로서 웰코스 연구소의 20년 가까이 축적된 첨단기술 노하우가 집약되어 피부 밸런스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 중요 요소인자들을 적절하게 함유(Skin Harmony System), 피부를 최적의 상태로 가꾸어 준다는 컨셉으로 개발되었다.



**이글코리아 (사장 방성석)**는 신제품 이글아이(**EAGLE EYE**)를 출시하였다. 이글아이는 테러, 납치 위협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수 있는 간편하고 강력한 호신스프레이다. 인체에 해가 없는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였으며 가스총에 비해 저렴하고 예쁜케이스에 들어 있어 선물용으로 적합하다고 한다.

## 도드람B&F (사장 김대성) 한국경영생산성대상(고객만족 부문) 수상

(주)도드람비엔에프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 제27회 국가경영생산성 혁신대회에서 경영생산성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한국경영생산성(고객만족부문)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또한 경영생산성향상 실적이 우수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생산성향상우수기업으로 지정(2003.9.5~2005.9.4) 받았다.

## 수재민 돕기 (주)삼립식품(사장 김영덕) 외 계열사 빵 20만 봉기탁

(주)삼립식품은 계열사인 (주)사니, (주)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주)와 함께 태인 사니 그룹( 회장 허영인) 차원에서 강풍과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태풍(매미)로 인한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빵 20만봉을 지난달 18일 조선일보에 기탁하였다. 그리고 영호남과 강원 등 피해가 심한 재해지역 복구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 서진규 회원 출판기념회

1999년 한국에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서진규님의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의 저서가 일본현지의 열화 같은 요청에 의해 「희망,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란 제목으로 번역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아 래-

일 시 : 2003년 10월 1일 오후 6시30분

장 소 : 도쿄 아카사카 프린스호텔

제 목 : '희망-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きぼう- わたしは私は私は諦めない)

출판사 : 보도사(寶島社)







**서부배합사료(사장 정세진)**는 지난 9월5일 한국복지재단(회장 김석산)과 연계하여 **'사랑의 계란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 하였다. 민족의 대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완전식품인 계란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자는 취지로 진행된 이 행사는 사회복지단체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윤리경영)에 참가하는 계기를 맞이 하였다.

**재단법인 훈 사랑 농촌문화재단 (이사장 김용복)**은 지난 9월 27일 신라호텔에서 법적 절차를 모두 필하고 10월 1일부터 정식출범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재단설립에 참여하고 성원한 관계자들에게 그간 경과 및 향후 사업방향을 밝히는 창립축하모임을 가졌다.

**전영재 일약약품 사장**은 9월 1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가진 "제9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다. 금번 수훈은 통계업무의 향상을 통한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받아 영예를 안게 되었다.

**KTF(대표 남중수)**는 아름다운 재단(상임이사 박원순)과 함께 소외 청소년의 IT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공부방 한 곳을 선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비기(Bigi) IT 공부방'**을 운영한다. KTF는 첫 후원 대상으로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대안학교 '별'을 선정, 이 학교에 컴퓨터, 프로젝터, 인터넷 사용자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IT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고, 임직원 자원봉사단 꿈을 여는 친구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도배, 장판, 책상 설치 등 새로운 환경의 공부방을 조성했다. 비기 IT공부방은 매월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공모 신청과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KTF 임직원봉사단과의 결연을 통해 IT 인프라 구축과 개인별 카운셀러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 재내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제이에스엔지니어링 정창현 사장의 장남 동원군의 결혼식이 지난 9월 20일 소피텔엠버서더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미은행(회장 하영구)**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수해지역에 자원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수재민 구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은행은 지난날 22일 지난해 큰 물난리를 겪은데 이어 업컨데 덮친 격으로 올해 또 태풍피해를 입은 강원도 정선에 자원봉사단 100명을 파견하였다. 자원봉사단은 양수기 이용, 침수된 주택가의 물을 펴내고 가재도구를 정비하는 등 현장지원활동과 함께 생수·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태풍으로 쓰러진 가로수·간판정리 및 도로정비 지원에 나서는 등 태풍으로 활기를 잃은 지역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업체에 대해 피해 확인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여신지원(신용보증기금 연계프로그램 적극 이용)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우대금리 적용(약 5~6%), 만기도래여신 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태풍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징수를 올해말까지 유예키로 하는 등 각종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다산	(윤영상 회장)	23주년(10월 1일)
(주)성신신소재	(임병문 사장)	16주년 (10월 1일)
성부트레이딩(주)	(차진영 사장)	19주년(10월 1일)
삼부해운(주)	(금태인 회장)	36주년(10월 2일)
(북)해동재단	(장찬기 회장)	3주년 (10월 2일)
동우이앤씨(주)	(고승순 사장)	9주년 (10월 5일)
한신전선(주)	(김영재 사장)	34주년(10월 10일)
(주)유니온	(김명식 부사장)	39주년(10월 10일)
흥안실업(주)	(탁재용 회장)	16주년(10월 15일)
광동제약(주)	(최수부 회장)	40주년(10월 16일)
금동공업(주)	(박노운 사장)	28주년(10월 22일)
현대교역(주)	(장남수 회장)	50주년(10월 24일)

# 연구원 소식

## 신규회원

곽병진 (주)코스만물류 대표이사 (개인회원)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 종근당빌딩 12층
- 전화 : 02-363-0919 • 팩스 : 02-363-0913
- 업종 : 유통
- 추천 : 장만기 회장



박종철 (주)제니엘 회장 (개인회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4-2 순영빌딩 3층
- 전화 : 02-580-0003 • 팩스 : 02-580-0104
- 업종 : 아웃소싱
- 추천 : 박인주 (주)제니엘 사장



김창호 (재)에덴스포츠타운 본부장 (개인회원)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상천리 277번지
- 전화 : 031-581-1300
- 업종 : 종합스포츠투레저타운
- 추천 : 본인



## 소모임소식

이종기업동우회1그룹(회장 유상옥/ 총무 송언기) 의 제194차 모임이 지난달 29일에 있었습니다.

이종기업동우회2그룹(회장 전순표/ 총무 우창욱)의 10월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아 래 -

일시 : 2003년 10월 7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타워호텔 만복림(tel.02-2236-2121)  
 주제 : 지식경영을 위한 열린 조직문화  
 연사 : 강석진 회원님(CEO건설링그룹회장)

이종기업동우회3그룹 (회장 윤화진/ 총무 강민지)의 10월 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아 래 -

일시 : 2003년 10월 1일 (수) 11시 17분  
 장소 : 금강CC (경기도 이천소재)  
 문의 : 세람상호신용금고 이재용 사장님  
 (031-633-6781)

##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첨부)  
회원납입(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개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 ~5인)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 이상)

###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개인회원 : 年 \$ 3,000 (3인 ~5인)  
 특별회원 : 年 5,000 (6인 이상)

###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국내계좌) : 102-910003-99904  
 한빛은행 (외화계좌) : 132-055539-41-502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인경희 (회장 이심 / 총무 윤종후)의 정기 월례경기가 9월 30일 한양 c.c에서 있었습니다.

## 행사소식

본 연구원이 주최하였던 【북한기업인초청강연회-윤봉설】을 통하여 인연을 맺은 일본 千葉(지바현)地域 商工會 韓國經濟交流會에서 한국에 큰 관심을 갖고 본 연구원과 친교프로그램을 갖고자 韓日經濟交流會를 개최하였으며 본 연구원의 회원을 정중히 초대하였습니다. 이번 교류회의 千葉地域 商工會 韓國經濟交流會측 참석자는 회장 김우현, 부회장 윤봉설, 이사장 안경일, 이사 백천을 외 상공회 회원 25명이 참석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여러분의 참석 바랍니다.

일 시 : 10월 16일 (목) 18:00 ~ 20: 30 경계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인간개발연구원 전략적 제휴

젊은 인터넷신문으로 20~40대의 개혁적인 네티즌을 주요독자로 삼고 있는 오마이뉴스와 전통 깊은 포럼단체로 50~70대 중도보수적인 기업인이 주요회원인 인간개발연구원 두 기관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서로 다른 이념간의 대화와 통합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두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각적인 공동보조를 할 것이며, 분기에 1회씩 공동주최포럼을 개최한다. 조직과 행사는 인간개발연구원이 주도하고 홍보는 오마이뉴스가 주도한다. 특히 이 공동포럼은 11월 세대공존을 주제로 지상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오마이뉴스 주 독자인 20-40대와 인간개발연구원 주회원인 50-70대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주)엘엠아이코리아 소식

LMI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치 있는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아래와 같은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강일 안내

EPL(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내 용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개발을 위한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계획 프로세스의 실천 훈련 과정

**일 정 :** 잠실본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명동지사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의도지사 매달 첫째주 월, 화, 수요일 오후 7시 각 개강

**기 간 :** 16주간 일정요일 주1회, 2시간

**참가비 :** 1인당 200만원(VAT별도)

### EPP(Effective personal Productivity)

-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내 용 :** 조직생활의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여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 (성공하는 자기경영 시스템 석세스플래너 포함)

**일 정 :** 여의도지사 매달 첫째주 월, 화, 금요일 오전 6-9시 각 개강  
기간 : 7주간 일정요일 주1회, 3시간  
참가비 : 1인당 120만원(VAT별도)

### EPM(Effective personal Management)

- 성공하는 자기경영 시스템 과정

**내 용 :** 우선 순위에 따른 계획으로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궁극적인 목표의 효과적인 성취 과정

**일 정 :** 여의도지사 매주 토요일 오전 7-12 각 개강  
**기 간 :**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참가비 :** 1인당 25만원(VAT포함)

###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문의처 : (T) 774-3230 (F) 757-3230 (H)  
www.whynotyou.co.kr

### (주)경쟁력평가원 (여의도지사)

문의처 : (T)785-3658 (F) 785-3659 (H)  
www.cvikorea.net

### (주)엘엠아이코리아 (잠실본사)

문의처 : (T) 2202-8700 (F) 2203-1974 (H)  
www.LMI-korea.com

♣ 참가 및 사내교육을 원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역경의 열매

장 만 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나는 "苦练"이란 말을 참 좋아한다. 苦练과 가까운 "産苦"란 말도 좋아한다. 온갖 노력을 쏟아 부어 지어낸 책을 "力作"이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부·귀·영·화도 결국은 애써서 사는 苦练의 열매들이다. 그러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얻는 부귀영화란 그 얻은 자를 결국적으로 패망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 인간의 역사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나는 최근에 국민일보의 요청에 의해 "역경의 열매"란 제목의 연재를 통해서 나의 70에 가까운 지난날을 주마간산 격으로 정리해 보았다. 한마디로 苦练의 연속이었다. 다행히도 고난의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더 할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있다.

많은 독자들로부터 격려의 전화를 받기도 하고 처음 알게 된 분들로부터는 사양했지만 사려 깊은 혹은 호기심에 찬 방문을 받기도 했다. 평소에 알고 지냈지만 나의 고생스러웠던 과거를 잘 알지 못하셨던 분들은 마치 새로운 것이라도 찾았다는 듯이 고무적으로 전화를 걸어주셨다. 내가 70년대에 서울경제신문에 1년간 "인간경영"이란 칼럼을 집필했을 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독자들의 전화를 받았다. 정부의 고위층, 정치인, 대학총장 그리고 성공한 경영자, 성직자들, 가장 많은 전화를 걸어준 사람들은 중·고교동창들이었다.

나는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 인간관계를 맺어왔다. 그 중에도 기업가나 경영자를 가장 많이 만나고 있다. 성공한 기업인과 경영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苦练이란 인생의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사람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성공한 기업가로는 일본에서 세계적인 기업인으로 성공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과 한국경제계에 혜성처럼 성장하고 있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다. 두 사람은 건강문제로 거의 절망적인 역경 속에서 수천 권의 책을 탐독하는 독서로 치명적인 질병의 역경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세계적인 기업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창조주로부터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받고 태어난다. 인간잠재력의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다. 인간개발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온갖 종류의 역경을 그들의 내면에 간직한 무한한 잠재력을 분출시키는 창구 또는 기회로 이용한 사람들이다.

**"천재란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발명왕 에디슨이 囁켰듯이 고생 또는 역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땀 흘리는 노력이 없이는 인간의 위대함은 태어날 수 없는 것이다.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99%의 땀을 흘려 1%의 영감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룩한 업적을 진실하게 기록해 놓은 이야기이다.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는 좀 웃기는 말이 있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존재가 어떤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한 인간무지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행위라는 비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짓밟힘의 역경이 주는 교훈적 의미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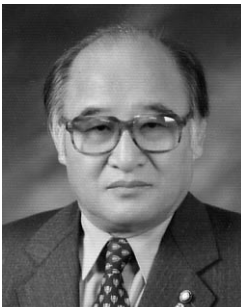
하나님과 인간성을 함께 상실한 현대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제 영역에서 더 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있다.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존엄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인간회복"의 과제이다. 인간이 본성을 회복하고 "苦练"이라는 人間産苦의 관문들을 통과하여 더 높은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갈 때 인간은 더 값진 존재(Better people)로 끊임없이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다. 사람들이 인간본성을 되찾고 매일 매일 더 높은 존재로 성장해 갈 때 세계는 보다 살기 좋은 세계(Better world)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제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갈고 닦는 마찰이 없이는 보석으로 연마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인간도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 중국연변해외친목회 초청행사...를 다녀와서

인간개발연구원 조순 명예회장님, 장만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12명은 중국연변해외친목회의 초청으로 지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동안 중국 연변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회원친선행사는 인간개발연구원과 연변해외친목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과학, 경제기술 등에 관한 상호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연결시 인민정부의 해외기업유치 노력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에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들의 소감을 정리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고의全文은 인간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연길을 다녀와서

허 정 근 송암의료재단 회장  
(중국방문단장)

금번 중국 연길의 초청으로 인한 중국과의 교류는 한국인의 사업현황 및 중국의 문화를 접하는데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 마음 흐뭇한 좋은 여행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양털솜 위를 달려가는 비행기 내의 어나운스먼트가 울리면서 도착지를 알리는 비행기의 소음도 멎었고, 우리 일행은 초청측의 안내로 백산 호텔에 여장을 풀고 곧바로 두만강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몇 십 년을 그리워하였던 두만강이었는가? 노란 페인트 한 줄이 시멘트 다리 위 절반에 금그어져 있어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임을 알려

주었고, 몇 백미터 앞에 보이는 철길의 절반이 나뉘어져 있는 페인트의 표시 위에 눈길기 머물렀을 때 아이러니 하게도 이산가족의 회한을 새삼스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핏줄 한 가족인 바로 나의 여동생이 노란 페인트 표시 저쪽 북녘 땅 바로 저곳에서 살고 있던 말인가? 살아있을까? 반 백년이 넘는 긴 세월 속에서 그리움으로 소식조차 전할 수 없는 보고싶은 내 동생! 죽기 전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기약조차도 없이 저 땅 저 흙속에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변했을까? 백발이 무성한 내 얼굴을 유리창으로 비추어 보며 인생무상을 생각하니, 찢기는 아픔의 연민이 가슴을 후비고 파헤쳐 대동강물 너머를 주시하는 씨늘한 시선 속으로 눈물방울이 뚝, 옷깃 위를 스쳐 내려왔다.

호텔을 찾아 돌아서는 길목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기업 몇 곳을 둘러보았는데 규제가 많은 한국보다 기업인에게 최선의 성의를 베풀는 그곳 상황을 보면서 역시 대국다운 기업유치 방법이 마음에 들기도 하였었다. 그것은 즉 한국인이 500억 원을 투자하여 골프장과 콘도를 건설하고 1개월 내에 개업을 하게 하였고, 중국 정부에서는 도로포장 등 필요한 제반의 공사들을 많은 돈을 투자하여 해주었고, 엄청난 도움을 주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정부가 놀라운 정책을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3년간을 임대료 없이 운영토록 하다가 기업인이 자신이 없으면 철수해도 무방하다고 하며 그 동안에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 기업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놓고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는 현장을 보고 규제가 많은 한국정책의 외국인 유치반성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다음날 찾은 곳은 一松亭으로 푸른 솔길 오른쪽의 야산에 자그마한 정자가 눈에 띄었다. 그 옆으로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다고 하는데 이 소나무 밑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항일의 의지를 불태우고 했다고 한다. 이를 미워한 일제가 소나무에 구멍을 뚫고 약품을 넣어 일송정을 고사시켰다고 전해진다. 1980년대 후반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이곳에 '일송정'이라는 이름의 정자를 건립하여 이를 기념하고 있다는데 학창시절에 부르던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하는 노랫말을 가슴속으로 외워보기도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 장백산을 향하여 2시간 40분 정도 달려갔다. 산 위에 올라가 감상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한 후 다시 내려와 장백산 폭포를 돌아보았는데, 마치 용이 날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비룡폭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는 장백폭포를 관람하고 900여 개 층층대를 올라 백두산 천지를 밟으면서 감회가 더욱더 크게 떠올랐다. 그것은 언젠가 이곳 백두산을 찾았을 때 어느 누가 그렇게 멋을 부릴 수 있을까, 그 세련된 안목을 지닌 이들이 있거나 한 것일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백두산은 우리 들꽃들이 함께 하기에 더욱 멋들어진 생명과 색깔의 잔치였다. 눈 속에 묻혀 오랜 겨울을 난 노랑만병초를 시작으로 붓꽃, 하늘매발톱, 두매 양귀비, 용담, 씨범꼬리, 쯤참꽃, 구름송이풀, 털복주머니꽃 등 헤아릴 수 없는 들꽃 무리에 마음을 두고 떠나왔었던 연민의 이곳이었기에 이곳을 찾은 감회가 다시 새로워졌다. 자연과 신화적인 한 포기 그림 같은 현장 앞에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자연의 화산은 신비적인 존재이며 유일한 세계적 관광지여서 길이 보존의 가치를 갖추어 우리 일행은 자갈밭에 맨발로 둘러앉아 가져간 술을 나누며 축배를 올리기도 하였다.

등소평이 삼일을 머물러도 일기가 흐리고 안개 속에서 보지 못하고 되돌아갔는데 우리들의 방문은 1년에 몇 일 없는 맑고 깨끗한 날씨여서 한층 복되고 행복한 뜻을 담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였다.

매년 변해 가는 중국은 세계 대국으로 가는 길이 밝게 보이고 있었으며 감탄사를 던져도 손색이 없는 자연의 축복과 정책의 조화는 경제 발전을 확산하는, 세계로 향한 대국임을 엿보게 하는 것 같았다. 이 여행을 마치면서 인간개발 연구원 회원과 연길에서 초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찾아서

김 균 용 한국특수유(주) 상임감사

평소 유서 깊은 연변을 찾아 역사의 숨결을 보고 느끼고 싶던 차에 인간개발연구원을 통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의 초청을 받아 조순 전 부총리님과 장만기회장님을 모시고 방문단 일원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

나에게는 더없이 값지고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넓고 거대한 중국 땅에서 인정받는 소수 민족으로 조선족 자치주를 구성하고 이끌어 가는 젊은 조선족 지도자들의 실력과 능력 그리고 철저한 사명감에 놀랐다.

잘 정돈된 깨끗한 도시 그리고 다정하고 순박한 사람들로 부터 한 핏줄이라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연길시 역시 중국의 발전상에 발맞춰 현대화의 물결이 넘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구로공단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도면 그대로의 공장을 짓고 공단을 조성하고 오백여 한국기업이 진출해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있는 것을 업체방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특히 3년 동안 전기 수도료만 내고 공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값싼 인건비 그리고 기업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지금 우리 국내현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많은 기업이 시설을 뜯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 연변을 생각하면서

남 기 열 우리증권(주) 강북1본부장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금번 연변 여행은 나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많은 추억과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그 동안 늘 한번 다녀오고 싶었던 두만강변과 일송정, 백두산 등정은 잊을 수 없는 큰 의미와 감동이었다.

연변에서는 참으로 크나큰 현대와 혼 혼한 인정과 가슴속 깊은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이러한 인연을 더욱 소중히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연변 경제개발구와 연변 과학 기술 대학원의 방문은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의 활기찬 생활상을 보고,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인간개발 연구원에 감사드리며 다시 또 나에게 이런 행운이 오기를 기대한다.

## 연변방문 所懷

서 수 철 기업은행 성수동 지점장

만주, 북간도, 도문, 일송정, 비암산, 백두산, 천지... 어느 말 한가진들 가슴이 벅차 오르지 않는 단어가 있는가? 이번 추석연휴에 이 모든 곳을 한꺼번에 주유순행했으니 무슨 뜻밖의 축복인가! 특히 천하의 조순 회장이 함께 가신다니.

도문의 조중경제선인 두만강 다리 위에서의 안타까움,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의 벅찬 충격과 감동, 비암산 일송정의 바람결에 느낀 옛선구자들의 숨소리, 그리고 한반도 북단과 만주천지에 널린 동포들의 애잔한 삶에 그름 한점 없는 백두산, 천지에서 일광무제의 북만주를 향해 나는 울었다. 연변자치주의 조선족관리들은 매우 우수하고 의욕적이며 중국내의 그들의 지위를 확보하고 한국의 투자유치에 애쓰는 등 그곳에서 나는 소중한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





## 연변을 다녀오며

손 경 식 弘益三經開明院 원장

방문 첫날 白山大廈에 숙소를 정하고 도문(圖們)시를 시찰시에는 북한과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교량앞에 도문구안(圖們口岸)의 鄧小平 대역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만한 인물이 없나 하는 아쉬움이 시쳐졌습니다.

다음날 대망의 백두산 정상에 올라보니 구름이 맑게 개인데다 멀리 수평으로 거의 한바퀴를 감고있는 흰 구름은 千軍萬馬가 환영하는 듯 보였으며, 두 번째로 금년 6월에 설치한 터널 길의 777계단(전체 1000계단)을 올라가 天地물을 만지며 발벗고 들어가 찬물을 밟고 머리에 물을 적실 때는 온갖 고뇌를 씻어버린 듯 통쾌함을 느꼈으며, 바람 한 점 없는 파스한 날씨는 봄날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弘益理念으로 수천년간 在聖理化를 이루었던 단군조선의 중심지인 白頭天地의 英靈이시여 새천년 새인간 새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새인간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정은 인간개발연구원 등산회원의 공통된 바람일 것으로 믿으며 하산하였습니다.

## 연변에서 받은 감동

황 경 호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상근이사

중국연변회의 親睦會 초청으로 3박4일간의 旅行은 한마디로 感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조순 명예회장의 「아세아時代의 경제도래와 韓·中經濟協力の 課題 그리고 朝鮮族 企業人의 바람직한 역할과 方向」을 主題로 한 강연 內容이 조선족 企業人의 參加者에겐 물론 저희 研究院 參加會員에게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연길공업단지 視察時에 進出하고 있는 한국 기업체에게 첫 한해는 무상으로 工場敷地를 利用할 수 있도록 연길시 인민정부에서 特度化한 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우리 先祖들이 나라를 잃은 恨을 달래고 獨立을 위해 자주 모였던 용정에 있는 一松亭의 記念碑 옆에 놓여 있는 돌에 새겨진 일송정 노래가사가 훼손된 것을 보고 마음에 다소 걸렸으나 延吉市에서 復元하겠다고 시사하였으므로 多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 延邊紀行(七絕六首)

조 순 민족문화추진회 회장 /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圖們橋上望豆滿江  
圖們橋上聽江聲 秋滿江山天氣清 馬陰未開江水盡 淺江青草穿流生

\* 圖們橋上望北韓南陽市  
南陽南望 無聲滿目山川鬱未清 太息世間如此景 長教死境陷人生

\* 一松亭  
一松亭上聽松聲 遠望海蘭江水清 馳馬先驅龍井野 當年正氣死猶生

\* 登白頭山  
白頭山上滿人聲 恐毀靈峰淑氣清 萬里四周雲海蔽 幾何人物此中生

\* 過長白瀑布至天池北岸濯手足  
山默如聞呼我聲 登過長白瀑流清 天池北岸秋陽曝 氣入心身奮老生

\* 訪延吉  
延邊到處着工聲 不問都村濁婚 清瀾從古此鄉多血史 故人士節導今生

-번역- 연변기행 (7절 여섯 수)

\* 도문다리에서 두만강을 바라보며  
도문다리에서 강물 소리 듣노라 강산에 가을이 한창인데 서늘한 날씨 말이 강물을 다 마실 수는 없어) 얇은 강에 푸른 풀이 물을 뚫고 자라누나.

\* 도문강다리에서 북한 남양시를 바라보며  
남쪽 남양시는 소리 없이 고요해 보이는 산과 물은 답답하기만 하네 세상에 이런 광경 어디 있나 큰 한숨 죽을 곳에 인생이 빠져있구나.

\* 일송정  
일송정 위엔 소나무 바람 소리 멀리 보는 해란강 물줄기 맑네 선구자 말 달리는 용정의 들판 그때의 애국정기 아직 살아있도다.

\* 백두산에 오르다  
백두산 위엔 사람 소리만 가득 영봉의 정기 훼손될까 두려워 사방 아득히 구름바다가 덮어 사람 생물 그 속에 얼마나 살고 있노.

\* 장백폭포를 지나 천치 복여쿠에 도착. 소발을 씻다.  
말없는 산이 날 부르는 소리 들려 장백폭포 올라가니 물줄기 맑네 천치 복안엔 가을 양지 쪼이고 내 마음이 기를 받아 늙은 몸이 떨리노라.

\* 연길방문  
연변엔 어딜 가나 집짓는 소리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청탁이 따로 없네 예부터 이 고장에 피 어린 역사 많아 옛 사람 바른정신 지금사람 이끄누나.

1) 남이 장군이 "두만강물은 말이 마셔 없어져" (豆滿江飲馬無) 라는 시를 써서 청년장군의 기업을 토한 것을 두고 한 말. 말이 두만강 물을 마셔서 강물이 줄기는 했으나 아직 조금은 남아 있다는 뜻.

# 성서



진민자 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나는 지금은 불교 신자이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데는 젊은 시절에 읽었던 성서의 가르침들이 그 초석이 되었다.

청소년기에 홍사단운동이나 재건국민운동 등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들은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론적 질문들이었다.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책을 읽고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손에 딱 잡히게 '이것이다!' 라고 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10대 후반에, 나는 내 질문들의 일부에 대해 답을 찾았다. 드디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쫓대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쫓대를 세울 수 있는 영감을 준 것이 바로 성서였다. 성서는 내가 사회적 실천가로서의 삶을 정립하고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계기를 주었다.

이미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갈릴리 땅으로 가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예수의 삶은 내 가슴에 크게 각인되었다.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으로서 6.3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감옥에 다녀오고 이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인연을 맺어 여성운동에 투신하게 된, 지열하려고 노력했던 내 삶의 밑바닥에는 성서가 있었다.

그 후 30대에 어떤 계기를 통해 동양사상을 공부하게 되었다. 탄허 스님의 유발상좌를 하면서 접하게 된 동양사상,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 내게 남긴 것은 마음의 찌꺼기들을 끊임없이 비우고 버림으로써 스스로 정화된 삶을 사는 것이었다. 동양사상을 통해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고 청소년기 때부터 지녔던 내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나머지 답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동양사상을 나의 삶 속에 녹여내는 방법으로 나는 산 속 수행자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다시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20여 년간 내가 전력을 기울여서 해 온 일은 대중이 동양사상과 친해지도록 하는 일, 그리고 동양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생활문화를 매개로 하여 여성들을 교육하고 의식화하여 주체적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동양사상을 이러한 방법으로 실천하는 그 바닥에는 역시 성서를 통해 배운 예수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느낀다. 만일 내가 청소년기에 물었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을 성서를 먼저 접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았다면 육십 평생 내 삶의 방향도 지금과는 사뭇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꼭 종교가 같지 않더라도 위대한 경전들은 입을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수 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 온 성인들과 그 말씀들은 힘이 있다. 이 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성서나 혹은 불경을 권해보는 것은 어떨지.





# 알아준다는 것

주급 1달러50센트의 직공으로 시작하여 미국의 철강 왕까지 오른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에 대해 눈꼽만한 지식도 없었다. 그의 성공 비밀은 철강에 대해 잘 알고있는 수백 명이 슬하에서 자신의 일처럼 헌신했다는데 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사람 쓰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 재능을 그는 10세 때 터득했다. 그가 스코트랜드에서 가난하게 지냈던 소년시절 집에서 토끼를 길렀다. 워낙 多産인지라 얼마 못 가서 토끼장이 차버렸다. 가족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스코트랜드의 관습인지라 소년 카네기는 늘어나는 토끼가족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린 식견으로 벅찼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같이 노는 친구들 이름을 부쳐나갔다. 메리, 조지, 잭, 앤 등 토끼장은 한 동네 아이들을 한데 모아둔 기숙사만 같았다.

그 많은 토끼들에게 먹이를 대느라 카네기는 무척 고달팠다. 그런데 먹이풀을 넣어준 적이 없는 토끼장에 먹이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카네기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누가 토끼풀을 넣어주나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동네 친구들이 각기 몰래 풀을 뜯어다 제 이름과 같은 토끼장에 넣어주고 가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름으로 알아주면 희생을 무릅쓰고 남의 일도 제일처럼 한다는 심성을 카네기는 잊지 않고 성장한 것이다.

후에 철강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큰 고객은 철도사업의 선구자 펜실바니아 철도회사였다. 무한정 레일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피츠버그에 거대한 공장을 신축했을 때 그 제철소 이름을 에드거 톰슨 제철소로 등록을 했다. 에드거 톰슨은 바로 펜실바니아 철도회사의 주인이자 사장 이름이다. 이 철도회사에서 필요로 한 방대한 레일을 바로 자신의 이름이 붙은 제철소에서 사들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카네기는 관련업체관계자 이름을 존중했을 뿐 아니라 휘하 종업원 이름을 외우는데 천재였으며 그가 기업의 진두에 있을 때 파업이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음은 바로 이 이름으로 알아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의 무덤 묘비명에는 이렇게 씌어있다.

**「자신보다 현명한 인물을 주변에 모으는 법을 터득한 이 여기에 잠들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후에 국가 원수로까지 되는 파데리프스키는 청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15회의 기차여행을 했는데 그의 침대차에 붙은 흑인 요리사에게 항상 '미스터 커퍼!' 라고 정중하게 불렀다. 당시 미국인들은 흑인을 천대하여 손가락질로 부르거나 '헤이!' 하는 것이 상식이요 좀 대접한다는 것이 '쥬!' 하는 것으로 개 부르듯 이름만 내뱉었다. 이에 정중하게 성을 부르고 미스터까지 부쳐주는지라 최고의 대접을 받고 다녔음은 물론이다. 그가 정치적으로 대성한 것도 이처럼 알아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李 圭 泰 조선일보 논설고문

1970년대 일본 여자배구가 세계를 휩쓸어 魔女軍團이란 이름으로 날렸었다. 스포츠계에서 보다 경영계에서 관심을 갖고 그 감독에게 접근하여 어떤 인간경영으로 그토록 왜소한 몸으로 강대 군단을 만들었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간단했다. 선수들을 '야!', '자!' 하거나 이름만 불러대지 않고 나무랄 때에도 정중히 이름 성명을 다 부르고 양(嬢)같은 존칭을 부쳐 부른 것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

이름뿐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이나 남다른 것을 찾아 자연스레 알아주는 것이 리더십의 초석이요 본심을 은폐하는 한국인에게 있어 더더욱 효력이 강하게 발생하는 알아줌이다. 人間

# 최고의 필드에서 최고의 자부심을!

분 양 구 좌 : 10구좌  
개 인 : 5억 8천만 원  
법 인 : 11억 6천만 원  
문 의 : 031-882-8000

품격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 회원님이  
추천하시는 분에 한해 입회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렉스필드 CC 고객센터팀 -

## 차별화된 27개의 홀

27홀로 구성되어 있는 Lake 코스, Mountain 코스, Valley 코스  
서로 다른 27개의 홀에서 색다른 묘미를 만끽하십시오.

Lake 코스 : 여성의 섬세함, Mountain 코스 : 거친 자연과 싸워 나가야 하는 남성적 코스,  
Valley 코스 : 인간의 끝없는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는 챌린지 코스

## 한국 필드의 자존심 BLACK홀

그린 왼쪽의 설악산 하늘 벽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절벽과 그린 주위의 검은 벌판 그리고 바위 폭포 속  
에서 튕겨져 나오는 물방울을 느끼며 색다른 도전을 해 보십시오. 이밖에도 SKY홀, CREEK홀, 원양홀,  
분화구홀, SWAN홀, DEER홀의 신비로운 코스가 회원님을 기다립니다.

## 국내 최초 꽃잎형 bunker

기존의 말발굽형이나 신발 형태의 bunker 모양을 탈피했습니다. 단순히 라운드를 위한 기능적 공간이 아  
니라 자연과 조화되고 때문지 않은 예술품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에서 꽃잎형 bunker가 완성되었습니다.

## 환상적인 노천탕 체험

경기를 마친 뒤 야외에 있는 노천탕으로 향하십시오.

맑고 깨끗한 온천수에서 색다른 체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신선이 된 듯한 환상적인 체험!  
오직 회원님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